

호매칼럼



김명화 /교육학박사·동화작가

꽃 무더기가 세상을 활짝 여는 4월의 길목이다. 만개한 목련꽃 후두둑 떨어지고 난 후 벚꽃과 유채 물결이 남도의 산하를 뒤덮었다.

조금만 고개를 돌려도 오만가지 고운 꽃들이 여기저기 지천에 깔려 바라보는 즐거움이 큰 봄날이다.

지인과 함께 차를 몰고 영산강 강변을 달리다 노란 물결이 넘치는 유채꽃밭을 눈이 짓무르도록 바라본다. 봄을 느끼며 노란 유채꽃이 핀 길을 밟아 부르도록 꽃길을 걸어 본다. 걷다가 꽃길의 아름다움 멈추었다가 걷다가 다시 멈추어 바라보니 어느새 노을이 지고 있다.

4월은 꽃을 보다가 한 달을 보낸다. 섬진강에서부터 시작된 봄꽃은 나주 영산강까지 밀려 왔다. 노란 물결이 넘실거리는 유채꽃밭이 너무 아름다워 가는 길을 멈추어 본다. 지금쯤 남도의 섬진강 벚꽃은 꽃비가 내리고 있겠지.

집에 있는 사람들도 가는 봄이 안

타가워 길을 나서서 봄날에 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이 차가워지는 시간이다.

꽃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황지우 시인의 '여기서 더 머물다 가고 싶다' 시를 만났다. 이 봄날의 정서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시다.

'평! 튀밥 튀기듯 뱃나무들/ 공중/ 가득 흰/ 꽃밥 튀겨 놓은 날/ 잠시 세상 그만두고/ 그 아래로 휴가 같 일이다/ 눈 감으면/ 꽃잎 대신/ 잉잉대는 발들이 달린/ 금방 날아갈 것 같은 소리-나무 한 그루/이 자상에 유감없이 출현한다./ 눈뜨면 만발한 벚꽃 아래로/유모차를 몰고 들어오는 젊은 일가족/흰 블라우스에 그 꽃 밟으면 지나갈 때/ 팝콘 같은, 이 세상 한때의 웃음/그들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내장사 가는 벚꽃길 어찌다 한순간/ 나타나, 판 세상 보이는 날은/우리, 여기서 조금만 더 머물다 가자.'

아름다운 꽃이 핀 봄날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시를 읽으면서 나주 영산강 노란 물결이 출렁이는 유채꽃 들판에서 나들이 나온 가족의 모습들이 그려본다.

나주 영산강 노란 유채 물결이 아름다워 차를 타고 봄나들이 나온 가족은 강변 유채꽃밭길을 걷다가, 노란 유채 물결이 햇살을 받아 너무 아름다워 벚을 불러 냈다.

한걸음에 달려온 벚과 나누는 인사가 정겹다. '행님, 엄청 젊어보입니다.'라는 아우의 말에 '말도 마라 꽃 구경 나온다고 엄청 신경 써서 나왔다. 어찌 괜찮냐.'라며 인사하며 '꽃밭이 아름다워 어디를 찍어도 인생샷이야.'라며 카메라를 누르는 벚들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봄나들이에 안성맞춤인 패션을 선보인 지인과 함께 영산강 꽃길을 걷는다. 꽃길을 걷다 보니 할머니, 아빠, 딸아이가 사진을 찍고 있다. 손녀를 안고 있는 어머니를 찍어주

는 아들의 모습이 정겹다. 가족의 아름다운 모습을 남겨주고 싶어 사진을 찍어주자 고맙다고 연신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름다운 봄날의 기억을 담아본다.

박용현의 '책은 도끼다'에 알랭 드 보통은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다.'라는 문장이 있다.

존 러스킨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했다. '삶, 사람의 힘, 기쁨의 힘, 감탄의 힘을 모두 포함하는 삶 외에 다른 부는 없다. 고귀하고 행복한 인간을 가장 많이 길러내는 나라가 가장 부유하다. 자신의 삶 기능들을 최대한 완벽하게 다듬어 자신의 삶에 나아가 자신의 소유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되는 영향력을 가장 광범위하게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라는 글을 통해 우리는 행복은 마음의 풍요로움에서 오는 것이라는 생각해 본다. 그러나 인간은 살아가면서 마음

의 풍요로움은 현실적인 삶 앞에서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SNS를 통해서 얻어지는 정보로 인한 박탈감이다.

특히, 청춘의 삶은 온라인을 통한 정보의 물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성숙한 소양이 완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는

이러한 때 봄이 주는 아름다움에서 얻어지는 풍요로움이 멈추어 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바쁘게 살아가는 삶에서 한 번쯤 쉬어서 마음의 풍요로움을 자신에게 주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인간은 살면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견자(見者)의 시선을 가져야 할 것이다. 삶은 머무름에서 마음의 풍요로움을 얻는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한다면, 이 아름다운 봄날에 더 머물고 싶은 장소를 만난다면 당신의 삶은 총망할 것이다.

■ 본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봄철, 부주의가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윤성열 /장성소방서 예방안전과

부주의로 인한 화재 주요 원인은 쓰레기 소각 438건(29%), 담배꽂초 312건(21%), 불씨, 불꽃, 화원방치 235건(16%) 순이다.

부주의 화재 사고를 막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수칙 몇 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한다.

첫째 화재 우려가 있는 야외에서 흡연 시 담배꽂초는 확실히 불씨를 제거하고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한다.

또한 인화성물질이 있는 장소(주유소 등)나 실내에서는 흡연을 삼가야 한다.

둘째 농작물·쓰레기 소각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바람 등에 의해 산불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심해야 하며, 쓰레기는 태우지 말고 분리수거해야 한다.

셋째 허용 지역 외에서는 캠핑, 야영 등지에서 취사하지 말아야 한다. 허용 지역에서 취사하더라도 조리 시에는 자리를 비우지 않아야 하며, 식용유 등 기름으로 인한 화재 시 쫓

봄은 따뜻한 햇살과 바람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주는 계절이다.

하지만 봄철에는 야외활동 증가와 건조한 날씨, 강한 바람 등 계절적 특성으로 작은 불씨로도 큰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에 따르면 봄철 전라남도 최근 3년간(21~23) 화재는 2349건으로 그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1507(64%)으로 봄철 화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은 수건을 이용해 덮거나 소화기를 사용하여 초기에 연소 확대를 막아야 한다.

나 하나쯤이라는 안일한 생각이 큰 재난으로 이어진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조금만 더 관심을 두고 안전 수칙을 준수한다면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

화재 예방 수칙을 준수한다면 안전하고 따뜻한 봄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차량화재, 차량용 소화기로 대비하세요



허진욱 /여수소방서 소방정대

인, 기계적 요인, 교통사고, 부주의, 가스누출 등을 있다. 이중 가장 흔한 원인으로서는 전기적 요인으로 전기배선의 누전 또는 단선이라고 한다.

우리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차량점검을 받거나 여러 가지 발생요인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한다.

가장 쉽고 간단한 것은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다.

만약 차량에서 화재나 연기를 인지하게 된다면 즉시 넓고 안전한 장소나 도로변으로 차량을 세워두고 시동을 끈 후 하차한 후 차량 내에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해 신속히 화재를 진압한다.

차량에 소화기가 없는 경우에는 하차 즉시 119에 신고하고 주변 차량에서 소화기를 빌려 초기 진화에 힘써야 한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위험이 감지될 때는 즉시 비상등을 켜고 도로변이나 졸음 쉼터, 휴게소 등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 위험이 적은 곳에 차량을 세운다.

자책적으로 초기 진화에 노력하고 대처가 불가능 하다면 근처 도로표지판과 갓길 이정표를 이용하여 119와 주변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에 정확한 위치를 신고한 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이처럼 차량 화재의 경우 대부분 달리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방차가 도착하는데 상당시간 소요 될 수 있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차량에 배치되어 있는 소화기로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한

다면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차량화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7인승 이상의 차량 등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24년 12월부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등으로 의무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나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 항상 이 점을 명심하여 가장 작은 것부터 실천으로 옮겨 나쁜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의 안전까지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호남매일 www.homae.co.kr. 발행·편집인 고계방, 주필 서길원, 편집국장 최춘의. 대표전화 (062)363-8800.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동 264-1번지). 사장실 (062) 363-0027, 편집국장 (062) 363-8800, 광고국 (062) 363-0005, 정·경부 (062) 362-6116, 편집국(FAX) (062) 362-0078, 사회부 (062) 362-6226, 서울취재본부 (02) 783-8117, 문체부 (062) 362-6116, 인쇄취재본부 (062) 943-0140, 지역사회부 (062) 362-6226. 구독료 연달: 10,000원 /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새 희망 새 언론 새 천년



푸른 언론의 길을 지향하는 호남매일과 같이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 호남인과 함께 하는 신문
• 정도를 걸어가는 신문
• 공익을 생각하는 신문

- ▶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062)363-8800
▶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 264-1)
▶ 기사제보·독자 의견: TEL: (062) 363-8800 FAX: (062) 362-0078
▶ 광고문의: TEL (062) 363-0005
▶ 서울지사(취재본부): 010-8803-1472
▶ 인터넷 참여: http://www.homae.co.kr
▶ E-mail: honamnews@hanmail.net honamaeil@naver.com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departments: 지국안내, 상무, 서부, 송암, 능성, 진월, 봉선, 중앙, 화정, 금호, 쌍촌, 오치, 문흥, 일곡, 동문, 두암, 철단, 신창, 월곡, 송정, 지사안내, 목포, 순천, 광양, 나주, 담양, 곡성, 구례, 보성, 화순, 영광, 완도, 장흥, 신안, 강진, 장성, 함평, 영암, 무안, 진도, 해남, 광산, 고흥.